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18년 3월

선교편지 제 108 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디고스 지역 학원 사역을 하면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는 학생들에게 '성경 암송'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선교 초기에는 현지어를 습득하기 전 이어서 영어로 소통을 했었는데, 항상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내용이 정확히 전달 되었는지에 대하여 늘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상이한 문화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차이로 인하여, 복음을 쉽게 전달하기 위한 경험이나 예화가 현지인들에게는 의외로 동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지리적인 차이와 접하고 있는 문화의 차이로 인해서, 너무나 간단한 내용이라도 부연 설명을 많이 해야 하고, 결국에는 전달을 포기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는 경험을 했습니다. 즉,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언어와 방법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지 대상자를 고려하여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지를 늘 고민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는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을 찾은 것이 바로 '성경 암송'이었습니다. 어눌한 언어와 동감이 쉽지 않은 내용으로 복음을 힘들게 전달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암송'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학생들에게 직접 강하게 전달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 14:26)**

학생들과 성경 암송을 시작하기 전에 성경 암송이 주는 유익을 여러번 설명했지만, '암기'라는 힘든 이미지로 인하여 그 어느 누구도 환영하는 학생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어로 된 60개의 주제별 성경 구절을 매 주일 두 개씩 누적하여 암송하기로 하고, 어려운 첫발을 내 뒀습니다. 첫주는 둘, 그 다음주는 둘을 더하여 넷,..... 이렇게 열개의 성경 구절을 암송한 이후에는 성경 구절이 입에 붙어 떨어지지 않도록 몇 주를 같은 구절을 반복하여 암송하고, 확인한 이후에 계속해서 열둘, 열넷,... 그리고 마침내 거의 일년만에 끝까지 참여한 24명의 학생들이 60구절 모두를 술술 암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학생들만 똑똑한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곳 낙후된 지역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학생들에게도 많은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암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셨습니다. 마침내 부모님과 학교 선생님을 초대하여 60개의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한 성경 암송으로 인한 변화에 대한 간증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학생들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기적처럼 인근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시 119:43)

디고스 예일 교회, 익핏 예일 교회 그리고 바카카 지역의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현지 교역자 및 교사들과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를 오랜동안 같이 고민 했었습니다. 좋은 성경 교재를 쉽게 구할 수도 없고 비용도 많이 들어서, 자체적으로 (불법으로?) 현지 언어로 성경 교재를 번역하여 한동안 사용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는 중에 찾은 해결책은, 다른 아님 어린이들에게도 '성경 암송'을 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이 암송하면 좋을 30개의 성경 구절을 찾아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했던 방법과 유사하게 매주 한 구절씩을 누적해서 암송하도록 했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아이들은 본인이 직접 성경 암송표를 들고 암송을 하게 하고, 아직 글을 모르는 아이들은 제 아내와 현지 교역자들이 마치 어미 새가 어린 새끼 새에게 모이를 물어 주듯이 계속 반복해서 듣게 함으로 암송을 시켰습니다. 암송을 잘 마친 어린이들에게는 당연히 맛있는 캔디를 주어 격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모일 때마다 찬양을 하고, 율동도 하고, 성경 말씀도 듣고, 그림도 그리지만, 이제는 '성경 암송'이 자리를 잡아 당연히 성경 암송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암송할 때와 달리 목청을 돋우어 큰 소리로 암송을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행 12:24)



그런데 익핏 예일 교회는 다른 지역과 달리 실내가 아닌 익핏 초등학교 교정에서 예배와 어린이 사역을 하기 때문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현지 사역자들이 목청을 더 돋우어야만 산만해지기 쉬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현지 교역자를 제외하고도 고등학교 때부터 성경 암송으로 다져진 교사 6명과 예배를 돕는 4~6명이 디고스 예일 교회에서 매주 함께 하고 있는데, 그룹으로 나누어 성경 암송을 하게 하면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열심을 내는 까닭에 모두들 땀으로 범벅이 되고, 목이 쉬기가 일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금년부터 미처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성경 암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각 성경 구절마다 어린이들이 말씀을 연상하기 쉽도록 '율동'을 접목하여 암송을 하게 한 것입니다. 어릴적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율동과 함께 암송한 것을 아직까지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방법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인지 미루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울동을 배우기 위하여 교사들에게 집중하는 까닭에 산만했던 모습도 없어지고, 울동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쉽게 외우는 모습을 옆에서 보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같이 외어지는 특별한 효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주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그 주에 외워야 할 성경 구절을 분석해서 단순하면서도 잘 이해될 수 있는 울동을 개발하여 같이 연습하고, 아이들에게 전달하여, 마침내 아이들이 즐겁게 성경을 암송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거릴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지역에 흥왕해지고 성경을 암송하는 어린 심령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 119:105)'라는 고백이 저희들 삶 속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행 19:20)



 이곳 사람들은 긴 이름의 본명이 있지만, 애칭이라고 불리우는 간단한 이름을 더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곳의 정서로는 같은 것을 두 번 반복하면 '귀엽다'라는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애칭은 간략한 이름을 두 번 반복하여 부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종종', '엔엔', '마마', '린린', '지지', '베베',등 많은 애칭이 어린 아이들로 부터 나이든 어른들까지 즐겨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디고스 예일 교회 현지 교역자의 애칭은 Pastor '돈돈'입니다. 작년에 부교역자로 부임을 했었는데, 담임을 했던 교역자가 진학을 위하여 타 지역으로 떠남으로 인하여 제 2대 디고스 예일 교회의 담임 교역자가 되었습니다. 제 아내에 의하면 Pastor '돈돈'은 필리핀 사람들 중에 제가 가장 많이 칭찬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10년이라는 선교지 생활 중에 많은 현지인 교역자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Pastor '돈돈'과 같이 꾸밈이 없고, 겸손하고, 신실한 주의 종이 디고스 예일 교회를 담임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Pastor'라는 직함이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현지 교인들을 겸손하게 잘 섬기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도 귀하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디고스로부터 산길로 약 두시간 정도를 들어가는 깊은 마을에서 자랐는데, 어릴적 왕래가 드문 그곳까지 찾아와서 개최된 여름성경학교에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고, 고등학교 시절 성경 공부를 통하여 주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하여 오늘에 이르렀다고 간증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Pastor '돈돈'을 통해서 일상적으로 감당하는 선교 사역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고등학교 시절 잘 인도해 준 Pastor '돈돈'의 Mentor를 직접 만나서 감사의 인사까지 했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디고스 예일 교회에는 '새벽 예배'가 없었습니다. 현지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고, 현지 교역자들도 새벽 예배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시작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교역자들이 이렇진대 교인들에게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했었습니다. 작년에 Pastor '돈돈'이 담임 교역자가 된 이후에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는 마침내 새벽 예배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제직들을 격려하여 우선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아침이 일찍 시작되기 때문에 오전 5시에 기도회를 시작하고 있는데, 처음 한, 두 주간은 제직들이 열심을 내서 기도회에 참석을 하더니, 우려했던 대로 그 이후로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게 되어 Pastor '돈돈'만의 기도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같이 고민하는 중에, 토요일 새벽마다 교인들의 집을 심방하여 기도회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한번도 빠짐없이 구역을 돌아가며 토요일 새벽에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제는 적은 인원이지만 마침내 교회에서 토요일마다 새벽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몇주전 주일 아침, 예배를 위해서 일찍 온 찬양팀들과 교역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교회에 들어 왔습니다. 모두들 저 보다는 아침 식사를 환영하는 가운데, 즐겁게 식탁에 둘러 앉았는데 Pastor '돈돈'만은 괜찮다고 하며, 식사 자리에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Pastor '돈돈'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5일째 금식 기도'를 하는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얼마전에 Pastor '돈돈'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금식'과 관련한 개인 간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 온 구비구비마다 참으로 부족하지만 '금식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 하셨는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 금식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과정, 자녀들의 신앙과 앞 길을 위해서 금식 기도로 옆드렸을 때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 축복의 과정, 선교지로 부름 받기까지 금식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과정, 그리고 선교지에서 디고스 예일 교회가 건축되기까지 금식 기도를 통하여 역사해 주신 과정들을 나눌 때에, 마치 금식 기도에 대하여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Pastor '돈돈'의 눈이 반짝이던 것이 기억 났습니다. 제가 했던 금식은 분명히 '3일'이었다고 말했는데, Pastor '돈돈'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는지 '5일'을 하나님께 약속하고 기도하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중에 얼마나 Pastor '돈돈'이 귀하고 감사한지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주일 예배는 디고스 예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이후 처음으로, 기도중에 대표 기도자와 교인들이 회개의 눈물을 쏟는 귀한 감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디고스 예일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신실한 주의 종을 통하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매우 연약한 교회 이지만,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모두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인하여 척박한 이곳에 선교의 진보가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계 3:8 하)

기도 제목

1. 디고스 예일 교회와 익핏 예일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2. 바카카 어린이 사역을 위하여
3. 장학생들과 장학 사역을 위하여
4. 성령 충만, 안전, 건강을 위하여
5.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